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 지원 다각화

나주시, 지역화폐 10% 할인 연장·전통시장 시설 개선
창업·운영 자금 융자 지원...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14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제감형 종합 대책을 수립,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소상공인 창업·운영자

금 융자 지원,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비롯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도모했다.

시는 지역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4개 업체의 대출액 이차보전에 8400만원을, 창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민 소득 융자지원사업을 신청한 8개 업체에 3억5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골목상권 소비 진작,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를 기존 9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올해 말까지 연장했으며 11월 말 기준 1천181억원 규모의 판매고를 올렸다.

시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중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남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운영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11월 기준 관내 음식점 전체 8.2%인 373개소가 가맹점으로 입점했으며 지속적인 업소 방문을 통해 공공배달앱 이용 혜택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먹거리 관광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 28개소에 1억2천만원을 투입해 입식테이블 전환, 바닥·화장실 보수, 도색·도배 등 시설개선 자금의 50%(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골목 상가와 더불어 민생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남평 5일시장, 영산포품물시장에 각각 5억6천만원과 4억2천700만원을 투입해 LED조명설치, 점포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간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진 경영 환경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준경 더불어민주당 소



나주시는 최근 소상공인화관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 안정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상가변영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20여명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와 황광민 나주시의회 부의장, 김정숙·박소준 시의원,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가

공실 활용, 상권 인구 유입 정책 추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에도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강진군, 심폐소생술 교육 강진군청 직원들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의 지도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강진군 제공>

“‘목포사랑상품권’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市, 내년 2월부터 결제 방식 다양화

오는 2023년 2월부터 모바일을 통해 목포사랑상품권을 구매·결제할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발행 중인 지류형·카드형 상품권에 모바일(QR결제형) 상품권을 추가해 결제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관광객이 목포를 방문할 경우 앱에서 상품권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화폐가맹점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없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목포사랑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앱 chak(착)’을 통해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데 연회비가 없으며 Q

R키트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가맹점은 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개인당 월 30만원으로 6%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발행 규모는 연간 150억원이다.

모바일 QR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대행업체가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업체정보, 결제정보가 담긴 QR결제 키트를 상품권 가맹점 8천200여개소를 직접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발행된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다”며 “QR결제 키트 설치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대행사가 방문하는데 이는 불법 사기가 아니니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 SNS관광 서포터즈 발대

신안군은 14일 “최근 자은면 라마다 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컨벤션 홀에서 ‘제2기 SNS 관광 서포터즈’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박형호 부군수, 조경희 신안군관광협의회 이사장, 지역 관광 관련 관계자와 전국에서 모인 서포터즈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기 SNS 관광 서포터즈는 지난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2명이 선발됐으며 수도권 54명, 호남권 41명과 함께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했다.

발대식과 함께 여행전문 강사 초청 ‘글쓰기 강좌’와 ‘길 위의 인문학’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후 섬 겨울꽃 축제장과 뮤지엄파크를 관람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까지 ▲군정소식 전달 ▲신안군 관광 명소 소개 ▲맛집 발굴 ▲문화, 행사, 축제 현장 취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군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사진·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된다. /신안=양훈 기자

해남군, 한우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역대 최대 사육두수...가격 하락 대비 규모 조절

해남군은 14일 “한우 사육 규모 확대에 따른 도축 확대로 도매 가격이 점진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 사육 두수는 올해 12월 356만마리, 내년 12월 358만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개체 수 확대에 따라 도축 마릿수도 내년에는 평년 대비 22% 증가한 94만마리, 2024년에는 102만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지역 한우 사육두수는 올해 상반기

5만3천39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여 마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우 전체 평균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진도축협 가축시장 경매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임산우는 평균 582만원, 암송아지는 평균 233만원, 수송아지는 평균 423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8만원, 123만원, 45만원 하락해 수급 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도매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배합사료 등 사료 가격은 상승함에 따라

농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한우 농가들의 송아지·번식용 암소 추가 입식 자제와 번식용 암소 감축 등 자율적 사육 규모 조절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군비 9억7천250만원을 투입해 사료 운송비와 사료 포장재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 개선·한우 개량을 위해 군비 총 6억2천800만원을 투입해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가축인공수정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드)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무안군,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선정

무안군은 14일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등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성화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내 개발(188개소) 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무안군은 올해 5월 탄도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했고 전국 15개소, 전남에서는 무안군과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탄도 특성화사업은 총 4단계 사업 구조로 1단계에서는 마을자원 발굴 및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에서는 1-2개

의 단위사업을 진행한다. 3단계는 마을 계획 고도화와 단위사업을 확장해 최종 4단계에서는 3단계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무안군과 협약해 주민 역량강화, 성과 관리, PM단(현장관리단)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의 유일한 유인도인 탄도를 살기 좋은 섬, 지속가능한 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성호 기자

완도군, 공무원 행사 취소 ‘가뭄 극복 지원’

행사 추진비 4천600만원 급수난 지역 재배정

완도군은 15일 “공직자 한마음 행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뭄 대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공무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 공직자가 함께 하거나 부서·읍면별로 분

산해 한마음 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가뭄 장기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4천600만원의 예산을 급일·노화·소안·보길·고급·약산 등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재배정된 예산은 생수 등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완도=윤보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